

# 한성연 '2025년 사회복지정책포럼' 개최

## '교회, 지역의 배움터가 되다' 주제로 사회복지전문과 주최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 홍사진 목사, 이하 한성연 '2025년 사회복지정책포럼'이 11월 11일 성결대학교 학습정보관에서 개최됐다.

'교회, 지역의 배움터가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성연 사회복지분과(분과장 김병천 목사)가 주최하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복지부, 대한기독교사회복지회 사회선교부가 공동 주관했다. 교회가 단순한 예배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의 학습과 돌봄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제에 나선 성결대학교 조준범 교수는 '교회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의 정의'를 시작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적 역할과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교회사회사업의 이론적 접근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천 모형과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교회가 복음의 실천 공간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지역교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이정소 목사에(수사삼동교회)는 '책과 함께 하는 돌봄과 배움-교회 밖에서 이어지는 작은도서관 사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목사는 신나는 문화학교, 신장년을 위한 글쓰기, 인문학 강좌,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학습 활동 거점, 협력과 확장을 통한 '교회와 시장지널' 지역신문 발간,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가 문화·교육의 중심이 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기 목사(물맨동산교회)는 '공감각은 도시사랑 사역'이란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32년째 목회하며 교회 1층을 지역사회에 개방, '공감각은 도시사랑'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기간 예배당 리모델링을 마친 뒤 "교회 공간이 주일에만 열리고 닫혀서는 안 된다"

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 사역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열린 배움터로 자리 잡았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구선희 교수(아산성결교회)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을 섬기는 아산성결교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 교수는 "교회는 더 이상 폐쇄적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의 배움터로서 평생교육과 사회적 일자리를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실제 아산성결교회의 교육·돌봄 사역 모델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과 평생교육원 및 민간협회의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성결교회의 사회복지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교회가 지역 속에서 배움과 섬김의 플랫폼으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며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 농어촌부, 영덕 수암마을 다시 찾아 '구슬 팍' 사과농가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 펼쳐



총회 재난대책본부본부장 이광섭 장로와 농어촌부부장 이명선 목사는 지난 22일 산불피해지역인 영덕군 수암마을을 다시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2차 봉사활동은 수확기를 맞은 관내 과수 농가를 찾아 구슬팍을 흘리며 사과 수확과 낙과 정리 등을 함께하며 농민들의 고충을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원동교회(고신원 목사)와 거룩한제성동교회(최윤영 목사) 성도들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와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구슬팍을 흘렸다.

일행은 이날 새벽 4시경 서울을 출발하여 영덕 과수농가에 도착 당일 출하를 하기로 한 사과 200kg을 모두 채운 후 오후 3시 경에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과수농가 홍 모씨는 "지난 산불 때 집과 사과 보관 창고가 모두 불타 농사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

고 사과를 매일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 주가 지나면 한 해 공들인 사과를 칸값에 직판장에 넘겨야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재난대책본부장 이광섭 장로도 "재난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 지역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덕군 수암마을은 지난 3월 산불재난이후 교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활기를 되찾았으며, 차광명 목사가 시무하는 수암교회도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예배 참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불에 탄 마을 성당당 3곳도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성결의 복음이 수암마을에 조금씩 스며들며 마을의 복음화는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정

총회장 홍사진 목사

- 11. 18 영암 채플관 건축위원 모임
- 20 한성연 총회장단 모임
- 23 국내선교위원회 개척학교 예배
- 24 CBS 교단장 간담회
- 24 한교총 대외 회장단 모임
- 25 한교총 상임이사회
- 12. 1 CTS 창사 30주년 예배
- 2 로고스교회 사백 집회
- 4 한교총 총회
- 17 군선교 예배
- 19 성결신문사 송년예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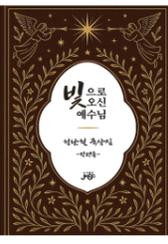
(바로 잡습니다)  
성결신문 618호(11월 11일) 1면 미주지역총회 성료 기사 중 하단부 '주강사로 초청을 받은 신수동교회 임시영 목사'를 '경사 최중인 원로 목사'로 바로 잡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성결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묵상집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발간

## 주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4개 소주제 구분

성탄절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성탄절 묵상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발간됐다. 이번 묵상집은 아동부, 학생부, 장년부로 구분되어 발간되었다.

이번 묵상집은 이사가 9장 6절을 주제말씀으로 선



정하여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집을 구성하였다. 첫 주제는 기묘하다. 모사라모 상담자 이신 예수님을, 두번째 주제 '전능'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세번째 '영존하시니' 영원하신 예수님을, 네번째는 '평강의'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간편하게 혼자서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부용 묵상집 집필은 송은영 박능력 김민정 전도사가, 학생부용 묵상집은 순환민 이현옥 전도사 김신성 김요한 목사, 장년부 묵상집은 박병두 이민철 목사 등이 참여해 각자의 복회 경험과 묵상적 통찰을 담았다.

# '영암 김응조 목사 기념교회당 건축후원회' 조직 구성

## 위원장 송덕준 원로목사·부위원장 박근주 장로 선임

영암 김응조 목사 기념교회당 건축후원회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5시 시흥동 마벨리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인원 선출과 향후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회에서 추천된 14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권순달 목사의 사모로 진행되고, 임태진 목사의 기도 후 홍사진 총회장이 전도서 3장 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총회장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권면한 뒤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회에서는 총회장의 제청으로 송덕준 원로목사를 후원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한 후원회장 주재로 부후원회장에 박근주 장로, 총무에 권순달 목사, 회계에 임태진 목사, 부회계에 강규열 장로를 선임하며 임원 구성을 완료했다.

간담회 형식으로 이어진 논의에는 건축후원회는 본 후원회의 목적을 성결대학교 설립자이자 조대 학장으로 헌신하



신 큰 스승이신 김응조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교회당 건립 후원으로 명확히 했다. 모금 방안으로는 기념패 부착 후원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예성 전국교회와 성결가족, 총동문회 및 대학별 동문, 전교생에게는 1만 원 이상 후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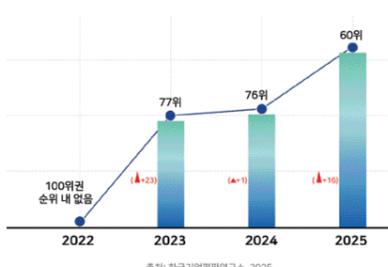
또한, 교회 명칭과 건축 부지 위치, 건축 규모 등 주요 사항은 성결대학교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념교회당은 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개방하여 전도와 예배의 폭을 넓히자는 의견에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으며, 학교 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는 총무에게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건축후원회는 앞으로 학교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기념교회당 건립을 위한 실질적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성결대 브랜드 평판 3년 연속 상승, 전국 60위권 내 진입

## 온라인 콘텐츠 및 구성원간 소통 지표 등에서 두각 나타내



〈브랜드 평판〉 최근 4년간 성결대학교 순위 그래프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가 '데이터투데이'가 발표한 2025년 11월 대학 브랜드평판 순위에서 전국 60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100위권 밖에 있던 성결대학교는 ▲2023년 76위 ▲2024년 77위 ▲2025년 60위 순위를 끌어올리며, 대학의 브랜드 경쟁력과 대외 인지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브랜드 평판 분석으로, 참여지수·소통지수·미디어지수·커뮤니티지수 등 다양한 항목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성결대학교는 특히 SNS 및 언론 노출 빈도, 온라인 콘텐츠의 공감도, 대학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지표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향상을 기록했다.

정희석 총장은 "성결대학교는 '융합과 혁신의 미래 플랫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신학·브랜드의 세 축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실질적 교육 혁신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이 우리 대학 브랜드 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학의 가치가 단순한 순위나 규모가 아닌 '소통력과 실행력'으로 평가받

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유형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결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SNS 홍보 채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브랜드 기반 영상·디지털 콘텐츠 강화 ▲학과별 맞춤형 스토리텔링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참여형 미디어 캠퍼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AI·브랜드·문화융합 교육 ▲산학연계 인턴십 확대 ▲지역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메타브릿지서비스 구축 등 실질적 사회 기여 활동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성결대학교는 앞으로도 '융합과 혁신'을 통한 미래형 대학 플랫폼'으로서, 학생·산업·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대학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한성연 해외선교분과, 각 교단 선교국 순회 방문

## 3개 교단 선교정책 공유 협력방안 논의

한국성결교회연합회 해외선교분과는 지난 19일 각 교단 총회본부 선교국을 순회방문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기성총회 선교국을 시작으로 두번째 진행된 이날 순회방문은 나성교단 선교국을 방문하여 나성의 역사, 해외선교 현황과 선교국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견학하였다.

우리교단에서는 선교부장 라건국 목사를 비롯한 이종동 손영삼 목사와 총회본부 전도국장 방길주 목사가 함께했다.

이들은 나성 총회본부와 함께 선교국 등을 견학하고, 나성 교단의 선교 정책과 현황을 나누고, 세 교단의 선교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3개 교단은 선교관련 시스템들이 공유되며 해외선교사들의 사역 공유

와 비상시 합동 대처 등 다양한 선교정책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음목회연합, 총회성결교신학교에 발전기금 전달

이음목회연합(회장 홍석영 목사)은 11월 24일 총회성결교신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음목회연합 회장 홍석영 목사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소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음목회연합의 '이음'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교회와 학교를, 교회와 교회를, 현재와 미래를 잇는(Connecting)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총회성결교신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특별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힘있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다하여 감당하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전달하였다.

